

한 땀 한 땀
정성을 전하는

‘마실봉사단과 IU뜨개봉사단’

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
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이들이
있다. 바로 뜨개질로 사랑을 전하는
마실봉사단(대화노인종합복지관)과
IU뜨개봉사단(일산노인종합복지관)이다.
집에서 한 땀 한 땀 만든 뜨개 용품을
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
정성에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함이
느껴진다.

글 편집부 / 사진 대화·일산노인종합복지관

마음과 마음을 잇는 ‘마실봉사단’

대화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자원봉사단 중 하나인 마실봉사단은 2014년 복지관 개관 이래 6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뜨개봉사단이다.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모인 총 12명의 선배 시민들이 뜨개 활동을 매개로 자원봉사에 힘을 쏟는다. “작은 재능으로 내가 먼저 즐거움을 느끼고, 봉사로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.”라며 봉사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.

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택활동으로 전환하여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. 가정의 달과 추석 등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날에는 일산서구 어린이집 4개소·어르신·지역아동센터 등에 방문해 뜨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. 또한, 1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한 ‘코로나를 이기는 노인봉사단’을 주제로 한 노인봉사단 영상 공모전에 ‘마음과 마음을 잇는 마실봉사단’으로 영상을 출품해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져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됐다.



마실봉사단 활동사진



사랑 한 땀 ‘IU뜨개봉사단’

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IU시니어봉사단 중 하나인 IU뜨개봉사단은 올해 7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선배 시민으로서의 소양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. 월 1회 뜨개질 재료를 전달받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뜨개 물품을 제작한다. 서로 사진을 공유하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“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니 오히려 저희의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.”라며 봉사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IU뜨개봉사단. 11월에는 뜨개 모자, 목도리 등의 뜨개 물품 213개를 국립암센터 환우들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아동들에게 전달했다. 12월에는 ‘온라인 뜨개물품 전시회’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.

가족에게 전한다는 정성 어린 손길로 지역사회에 마음을 전하는 마실봉사단과 IU뜨개봉사단. 앞으로도 선배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기를 기대한다.



IU뜨개봉사단 활동사진

